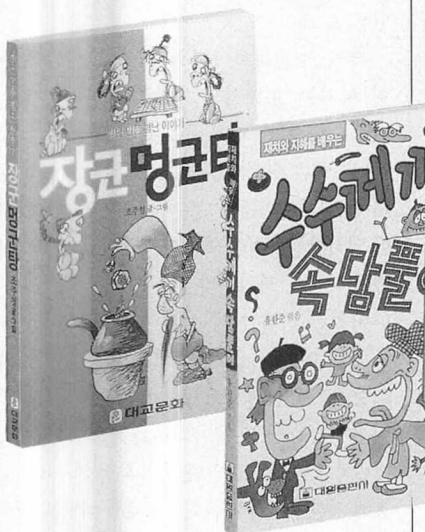


### 장군명군탕

조주청 지음

대교문화 / A5신 / 176면 / 2500원

별난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명인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화로 엮은 책. 황희정승의 이야기편에서는 현명한 정승으로 유명한 황희정승의 평소 검소한 생활을 보여준다. 정승은 자신의 사랑방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했지만 나랏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고 청렴결백해서 뒷날 임금이나 벼슬아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승을 떠올렸다고 한다.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가졌던 정수동, 심술긋고 욕심많은 어른 앞에서도 당차고 기지넘친 소년 이문원, 서울양반 버릇을 고쳐놓은 봉이 김선달, 대원군, 허준 등이 벌인 갖가지 별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 모모와 시간도둑

미카엘 엔데 지음 / 최성희 옮김

금유출판사 / A5신 / 204면 / 2000원

여덟살난 소녀 모모는 다 낡은 원형극장에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혼자 산다. 그렇지만 흑진주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모모를 찾아가게 되고 모모로부터 꿈과 희망을 얻게 된다. 모모에게는 청소부인 베포영감과 관광객들의 안내원인 지지청년이 절친한 친구이다. 어느날 마을에 낯선 사나이가 나타나서 마을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모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꿈이 담긴 샘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엮음

새소년 / A5신 / 296면 / 3000원

1989년에 한국아동문학가협회의 회원작가들이 발표한 작품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을 작가 자신이 골라 수록한 '우수작품집'. 어린이들의 맑은 심성과 꿈을 키워주는 76편의 동화·동시를 담고 있다. 아가 손 안에 들었던 / 작은 씨앗 하나, 엄마는 흙을 파고 / 그 씨앗 / 꼭꼭 땅에 심었다, ..... 땅 속 묻혔던 / 작은 씨앗 / 야! 지구의 껍질을 뚫고 / 쏘오옥 고개 내밀어 / 두리번 두리번 / 아가를 찾고 있구나. -「작은 씨앗 하나가」중



### 아빠곁에 있을래요

박상재 지음

서강출판사 / A5신 / 240면 / 2500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정아가 아빠를 찾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순정소설. 정아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큰아버지댁에서 살고 있는데, 아빠가 막노동판에서 어렵게 번돈으로 술주정을 일삼자 엄마는 돌도 지나지 않은 정아를 놔둔 채 가출해버렸기 때문이다. 큰엄마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착실하게 일을 돕는 정아는 부엌일을 보는 후암동 아줌마, 종민이 오빠와 함께 밝게 살아간다. 특히 피죄죄한 몰골로 같은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지수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며 학교생활을 한다. 그러나 6학년인 정아는 중학교에 들어갈 걱정이 생기는데...



### 수수께끼 속담풀이

유한준 엮음

대일출판사 / A5신 / 252면 / 2500원

'매 맞고도 노래부르는 것은?' '아무리 때려도 멍들지 않는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된다' 어떤 사물이나 일이 갖고 있는 묘한 뜻을 숨겨놓고 그 뜻을 찾아내는 말놀이인 수수께끼와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가 담긴 속담을 모은 책. 몇마디 안되는 짤막한 속담 속에서 조상들의 생각과 철학, 충고, 심성, 지혜 등을 흥미롭고 재치있는 말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수수께끼와 속담편으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배열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원문 밑에 풀이와 비슷한 말을 곁들였다.

### 나비가 된 아이

장수철 지음

아이큐박스 / A5신 / 92면 / 1800원

사랑을 주제로 한 다섯편의 단편동화를 모은 책. 부모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호רות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수록된 동화중 「어떤 선물 이야기」는 불우한 친구를 돕는 남희의 착한 심성이 그려져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평소에 갖고 싶어하던 인형을 받은 남희는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녀에게 인형을 준다. 이 사실을 안 엄마는 똑같은 인형을 사서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면서 남희에게 다시 선물한다. 어린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רות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

### 명탐정 짱구박사

홍윤기 지음

민서출판사 / A5신 / 216면 / 2500원

어린이들의 피와 재치로 엮어진 명탐소설. 머리통이 유난히 큰 명철이의 별명은 짱구박사이다. 텔레비전을 만드느라 고물상에서 기계부스러기를 사서 조립했더니 화면에 짱구의 몸속이 흰히 비친 일이 벌어진 이후로 할아버지가 지어 주신 것. 어느날 짱구박사가 살고있는 '행복마을'에서 김동철회장의 자살사건이 벌어졌다. 짱구박사 짱담, 똥돌이 똥담, 뽕돌이 뽕담은 이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탐정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들이 고안한 여러가지 기구를 가지고 탐정팀은 어떻게 죽음의 의문을 풀어내갈까.

### 뽕튀기나라 비둘기

조대현 지음

상서각 / A5신 / 204면 / 2500원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맑은 심성을 길러주는 단편창작동화를 모은 책. 책 제목이기도 한 「뽕튀기나라 비둘기」에서는 임금님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정직한 말을 하는 신하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뽕튀기나라'라는 이름은 임금님의 명령이 아래로 전해질수록 부풀어나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는 열배쯤 큰 명령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모든 신하가 임금님께 거짓말과 아부만을 일삼아 백성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데, 늘 충직한 말을 전하는 '참비둘기'의 용기와 지혜로 임금님과 신하들이 반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